

부귀영산

富貴榮山

Vol.01

2020.11

나주시 영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식지

“포야포야 영산포야 잠에서 깨어나라”





해봐도 되제 잉~

“고것이 뭐다요
아따, 편지 받는 우체통 아니여
고것을 몰라서 물엇가니?
쪼깐하니 알록달록 한 것이 이빠서 물어보제
우리도 그럼 만들어서 해보제 뭐
해봐도 되제 잉~
암만요”



영산동 죽전골목 조붓한 길이 수련됩니다.
뒷집 진 어르신들의 굵은 손에는 가을 햇살 얹히고
한 손에 든 봉다리엔 여럿이 나눌 이야기 담겨있습니다.
느릿한 추임새처럼 붙이신 ‘잉~~’ 그 소리
함께 살아온 따뜻한 이들에게 건네는
인사이자 확연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죽전 골목 그 길에 서서
“함께 해봐도 되지요 잉? 하고
말꼬리 올려 묻고픈 오후입니다.

영산동 NAJU



영산동 도시재생의 기반이 된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제가 한국의 경제를 독점·착취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1909년 영산포지점을 설립하고 배후 농지를 약탈하기 시작했으며 1916년 목포지점 영산포 출장소를 설치했다. 1920년 6월 1일에 목포로 이전했다.



영산포 등대

우리나라 내륙 하천가에 있는 유일한 등대다. 1915년에 설치되어 1989년까지 수위 측정과 등대의 기능을 겸했다. 등대가 있는 영산포 선창에 각종 선박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발전했다. 그러나 육·철로가 발달하고 70년대 국토개발계획에 의한 영산강 하구언 건설로 상권이 침체됐다.



영산포 역사갤러리 (구, 석산은행)

1918년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으로 조선석산은행이 설립되었다. 해방 후 건물은 다양하게 활용되다가 2012년 9월 나주시가 매입하여 현 영산포 역사 갤러리로 조성했다.



영산포 국경

6·25이전 영산포 천주교 성당 앞에 처음 문을 열었으나 전쟁 폭격으로 건물이 사라져 성당 맞은편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됐다. 지금의 자리에서 1958년 개관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았다.



일본인 지주가옥

일제강점기의 대지주 구로즈미 이타로의 가옥이다. 1935년 경 건립되었으며 2009년 나주시가 매입 후 복원·보존 중이다. 현재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전통차집 '다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영산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마을카페로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영산포 교회

1908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 배유지 오웬 선교사가 세운 교회다. 조선 아소교 영산포 교회(내산리 교회)로 세워졌으며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빛고을노회 나주시청에 소속돼 있다.

영산동을 — 말하다.

“다시 탄생한 영산포를 거닐 수 있기를”

신정구 (영산동 통장)

옛날에는 영산동이 아주 문전성시였어요. 하루에 두 번씩 시간을 알려주는 오포대에 백 년도 더 된 영산포 교회, 지게로 물이며 연탄이며 나르던 언덕계단길, 생필품을 사던 죽전 골목과 그 우측으로는 5일장이 늘어서서 항상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영산강 선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우면서 우리 마을을 일구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마을 주민들도 힘을 보태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우리 영산포가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그는 여그만의 멋이 있어” ▲▲▲▲



김영심님

여그(영산포 선창)에 배가 뻥질나게 드나들면서 황실이, 새비젯 같은 거를 신고 왔어. 소쿠리, 양푼이에 퍼다가 사묵고 그랬는다. 중국인들이 늘어서가꼬 비단도 팔고 실, 바늘도 팔고 그랬당께. 여그는 여그만의 멋이 있는데 이제는 다 죽어부렀어. 사람들이 모여야 재미나고 그제 살맛 나는 거인데... 이거(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여그가 다시 살아나면 사람들도 왔다갔다하고 참말 좋겠구나, 했제.



“영산포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 봐도 되겠죠?”



전남미용고등학교 2학년 강민서, 홍세빈

영산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흥어밖에 없었어요. 미용을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나 이곳에 2년 가까이 거주하며 역사가 깊고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곳이란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시골 동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의 역사와 사연을 들어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현재의 영산포는 눈 덮인 겨울 왕국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활기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욱 발전할 영산포, 기대해봐도 되겠죠?



“70년을 지켜온 마음으로 이곳 영산포를 지키겠습니다.”

자전거포 아저씨 박상현

여기서 벌써 2대째 자전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시작해서 지금 저까지 하고 있으니 근 70여 년이 넘는 자전거 가게네요. 오래된 가게인 만큼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런지 얼마 전 여름에 서울에서 온 분이 일부러 이곳을 찾아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국 어디에도 이런 곳은 드물 겁니다. 옛 건물이 그대로 있고 그 가게에서 자전거점을 하고 있으니, 이제 소개돼서 많은 분들이 이곳 영산포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70년을 지켜온 그 마음으로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골목 골목마다 웃음이 넘쳐나는 다시, 봄이 오길...”

영산동마을활동가 임현숙

동네 언덕을 오르다 보면 영산동이 다 내려다보이는 골목이 있는데 지금은 빈집들이 많아서 사람이 귀합니다. 아직 영산동에 머물러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멀리 떠난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생각들이 모인다면 오래도록 머물러 살고 싶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영산포를 아니?” 하고 누군가 물어온다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주민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

김민주 회장님 (영산동도시재생주민협의회 회장)

영산동은 아직까지 그 가치를 발현하는 근대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쇠퇴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준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찾고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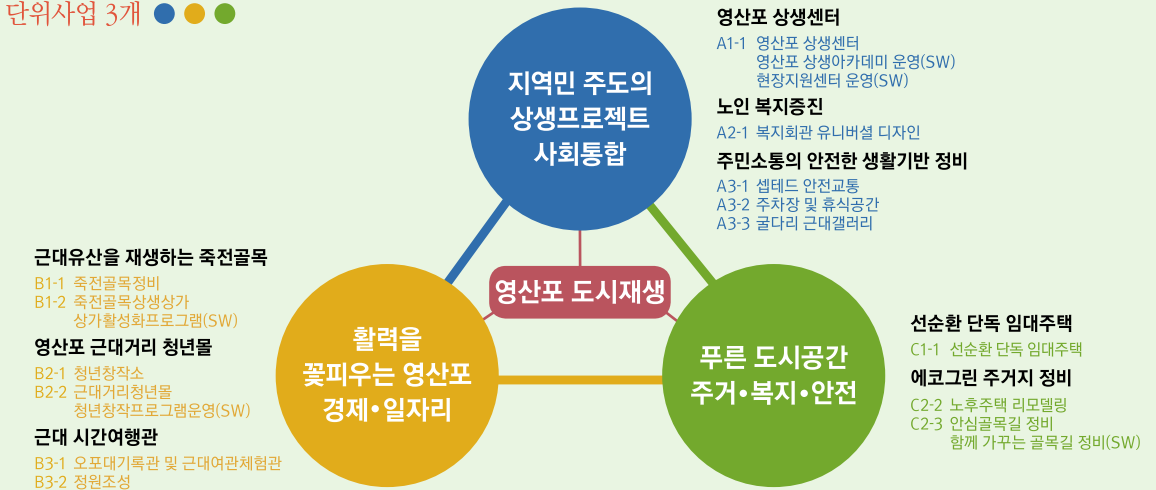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영산동 도시재생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도시재생

- ◆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130-2번지 일원 (영산동 2통~10통)
- ◆ 사 업 비: 189.1억원 (국비 93억, 지방비 96.1억)
- ◆ 면 적: 110,000m²
- ◆ 사업기간: 2019년~2022년(4개년)



영산동 종합사업계획도 단위사업 3개 ●●●



부귀영산
富貴榮山

나주시 영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도시재생

주 소 58267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3길 17, 2층
연 락 처 061-332-0663~4
블 로 그 blog.daum.net/yeongsanpo
유 튜 브 @나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인 스타 그램 @najucrc

